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93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3,1-12)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 마태 3,1-12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기 (12/8 대림 제2주일)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새다. 7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 이르렀을 때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이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 채로 굳어져서 먹이를 잡기조차 어려워지고 길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며 깃털들은 두꺼워져 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짐이 된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독수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환골탈태를 하기 위해서 150일 정도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등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등지 안에 머무른다. 이때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친 후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렇게 5개월이 지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30년을 더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 믿음에도 '새로남'이 필요하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낡은 인간성을 벗어 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에페 4,22-24).

독수리가 자신의 노쇠한 부리를 깨고, 발톱을 뽑고, 낡은 깃털을 뽑아낸 이후에서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청산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독수리가 새로운 부리, 새 발톱, 새 깃털로 살아입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입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뒷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낡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독수리는 바위 위에 앉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면 30년이라는 새 삶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영적인 '새로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대림의 시기이다.

대림의 시기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이고 준비의 시기이다.

구세주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이다.

새로워지지 않는 대림,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없는 대림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수원교구 1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공지사항

- ※ 대림시기는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기도와 선행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통하여 은총 가득한 시간을 가집시다.
- ※ 12월 7일(토) 세례식에서 새로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영세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 가득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상권 8-12장

◆ 성서문제

1.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우기를 요구했던 배경이 되는 내용(1사무 8,1-21)이다. 이 중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 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관관으로 내세웠다.
- ②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는 관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 ③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통치할 임금을 세워 달라고 청하였다.
- ④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의 권한을 전하며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임금을 세워달라고 청하였다.

2. 1사무 9,1-25에서 사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다음 중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 ① 사울은 벤야민 지파의 젊은이였다.
- ②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 주님께서 미리 사무엘의 귀를 열어 주시며 사울을 임금으로 선택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 ③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사울에게 달려있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당연히 여기며 매우 우쭐해졌다.
- ④ 당시 벤야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였다.

3. 1사무 10,1-2을 읽고 다음의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사무엘은 ( )을 가져다가, 사울의 ( )에 붓고 ( )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 )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 )로 세우셨소."

4. 1사무 10,9-13을 읽고 다음의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사울이 ( )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 )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 )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5. 1사무 10,17-11,15의 성경 구절을 읽고 다음 중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 ① 사무엘이 미즈파에서 임금으로 뽑은 사람은 벤야민 지파의 마트리 씨족 중 키스의 아들인 사울이었다.
- ②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 ③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샴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우월한 힘과 큰 키로 암몬군을 무찌르고 사울이 임금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 ④ 이스라엘 온 백성은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6. 사무엘의 고별사(1사무 12,1-25)를 읽고 다음의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 )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 )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 )이오.”  
“여러분은 오로지 ( ) 경외하고 ( )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사무엘에 의해 등장한 최초의 임금인 사울은 초기에는 탁월한 지도자요 훌륭한 투사로서의 자질이 입증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영(1사무 10,9-10, 1사무 11,6)이 사울에게 함께 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힘, 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운(사울을 뽑은 제비뽑기)이나 세사적인 능력(사울의 긴장한 체격 조건)이 좋은 삶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임하시는 하느님의 뜻(사울에게 임한 영)을 읽어내야 합니다. 나의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열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정사현정수 작곡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증-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ive lines of music, each corresponding to a line of lyrics. The chords are indicated below the notes. The lyrics are: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증-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